

〈Brief Report〉

DSM-IV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간의 관계*

황 순 택* 윤 훈 이 속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DSM의 성격장애 분류체계는 개념적인 분석 및 경험적인 자료에서 결함의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반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성격병리의 평가에 대해 성격 5요인 모델을 비롯한 대안적인 접근을 제안해 왔다. 본 연구는 DSM-IV 성격장애와 성격 5 요인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격 5 요인으로 각 성격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포함한 정상성인 390명에게 성격장애 진단 검사와 NEO-PI-R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0개의 DSM-IV 성격장애는 각각 성격 5 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중 일부 요인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각 성격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요인들을 확인해본 결과, '신경증'은 편집성, 분열형, 경계성, 회피성, 의존성 성격장애를 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향성'은 편집성, 분열성,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를 부적인 방향으로, 연기성 성격장애는 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방성'은 분열형, 경계성,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화성'은 편집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성, 연기성,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부적인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실성'은 편집성, 강박성 성격장애를 정적인 방향으로, 연기성,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부적인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SM-IV 성격장애를 성격 5요인 모델로 기술하고 변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 성격장애, 성격 5요인, 범주모델, 차원모델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 043-261-2187 / E-mail : hstpsy@chungbuk.ac.kr

정신의학에서는 의학적 전통에 따라 성격장애를 범주적 모델로 개념화하여 분류해 왔다. 그러나 범주모델에 입각한 DSM 성격장애 분류는 진단 신뢰도가 낮아 연구와 임상 장면에서 사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Oldham, 1987; Tyrer, & Ferguson, 1987; Widiger, & Frances, 1994). 범주적 분류체계에 입각한 성격장애 진단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그러한 분류가 실제 성격장애의 정의적 속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DSM에서 성격장애는 ‘융통성 없고, 부적응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손상이나 주관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성격 특질(trait)’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1994). 이 같은 정의는 성격장애가 정상 성격특질의 이탈된 부분 또는 성격특질 분포의 극단 위치이며, 성격장애가 정상 성격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양적인 수준에서만 다른 것이라는 개념, 즉, 차원모델을 내포한다(Blashfield, 1984; Eysenck, 1986; Frances, 1982; Millon, 1991). 이것은 진단체계 내에서 성격장애의 개념적 정의와 실제 진단모델 간에 모순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DSM-IV에서는 성격장애를 성격특질 분포상 평균으로부터 심하게 이탈된 극단으로 정의하는 차원모델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입각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APA, 1994). DSM-IV에서 차원모델의 개념을 소개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성격심리학, 특히 특질이론에서의 연구결과가 성격장애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DSM-IV 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범주모델 대신 차원모델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 연구자도 있

다(예컨대, Widiger, 1991).

특질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을 장애 대 정상이라는 불연속적인 이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특질이 ‘매우 뚜렷한’, ‘희박한’과 같은 연속적 속성으로 개념화 한다. 이 모델은 낮은 진단 신뢰도를 비롯한 DSM의 성격장애 진단분류상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되었다(Goldberg, 1993; Widiger, 1991, 1993).

많은 특질이론가들은 성격을 구성하는 특질 차원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성격 특질들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해왔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질이론은 성격 5 요인 모델(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gman, 1990; Goldberg, 1981; McCrae & Costa, 1992) 이다. 성격 5 요인의 측정도구로는 Costa와 McCrae (1992)가 개발한 NEO-PI-R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에서는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 요인 및 이들 각 요인을 특징짓는 6개의 하위 특질을 측정한다.

Widiger(1991)는 성격 5 요인 모델이 성격장애 진단 체계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DSM의 성격장애가 성격의 5 요인 모델에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개념적인 수준에서 밝힌 Widiger(1991)의 연구 이후 성격장애와 성격 5 요인 모델 간의 관계와 성격장애 진단의 대안으로서 성격 5 요인 모델의 유용성을 밝히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예컨대, Blais, 1997; Blais, McCann, Benedict, & Norman, 1997; Dyce, 1997; Lynam, & Widiger, 2001; Trull, 1992; Widiger, & Lowe, 2007; Widiger & Samul,

2005a,b).

성격장애와 성격 5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성격장애를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 5 요인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Dyce(1997)의 연구에서 높은 신경증은 일반적으로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자기애성과 연기성 성격장애에서는 개방성이 높지만 분열성 성격장애의 경우는 개방성이 낮아 서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계성, 회피성, 강박성, 또는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격 5 요인 모델을 평가해본 Morey, Gunderson, Quigley, 및 Lyons(2000)의 연구에서도 네 성격장애 모두 신경증 요인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신경증 요인이 성격장애의 보편적인 특징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 참가한 네 성격장애 환자들에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요인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개방성 요인은 회피성 성격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장애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DSM-IV 성격장애와 성격 5 요인 모델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을 개관하여 메타분석한 Saulsman과 Page(2004)의 연구 결과 신경증 요인은 편집성, 분열형, 경계성, 회피성, 의존성 성격장애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외향성은 연기성,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정적인 관계, 분열성, 분열형, 회피성 성격장애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친화성은 편집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성실성은 강박성 성격장애와 정적인 관계, 반사회성, 경계성 성격장애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5 요인으로 나타낼 때 임상표본과 비 임상표본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성격

장애 집단과 정상 집단 간의 성격요인 유사성은 성격장애와 정상성격이 양적인 정도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차원적 관점을 지지한다.

성격 5 요인 모델은 성격병리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그리고 과학적으로 명확한 틀을 제공할 수 있고, DSM에 개념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영역들을 다 포함할 수 있으며, 정상 및 이상 성격기능 둘 다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종합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현행 범주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Bagby, Costa, Widiger, Rtdler, & Marshall, 2005; Widiger, 2005).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격 5 요인 모델을 성격장애와 연결지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격 5 요인이 성격장애를 기술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해 DSM-IV의 10개 성격장애와 성격 5 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성격 5 요인으로 성격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와 청주시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하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참여한 총인원은 407명 이었고, 응답의 성실성이 의심되고 결측 문항이 많은 1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분포는 남자 177명(45.4%) 여자 213명(54.6%), 그리고 대학생 155명(39.7%) 일반 성인 235명(60.3%)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6.52세($SD=8.83$)였다.

측정도구

NEO 인성검사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 Revised; NEO-PI-R)은 성격 5 요인 모델의 성격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병모, 이경임과 정재창(1997)이 표준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신경증(N, neuroticism), 외향성(E, extraversion), 개방성(O, 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 agreeableness), 성실성(C, conscientiousness)의 5개 요인과 각 요인마다 6개씩 총 3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아주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안창규와 채준호(1997)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신경증은 .89, 외향성은 .86, 개방성은 .84, 친화성은 .79, 성실성은 .91이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

이 검사는 임상가들의 전형성 평정을 통해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개발한 황순택(199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제작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격장애 진단용 검사로, DSM-IV의 성격장애를 진단에 필요한 성격병리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총 113 문항, DSM-IV 성격장애 진단명에 상응하는 10개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별 문항수는 편집성(PN) 14문항, 분열성(SZ) 11문항, 분열형

(ST) 12문항, 반사회성(AS) 19문항, 경계선(BL) 15문항, 연기성(HT) 14문항, 자기애성(NC) 13문항, 회피성(AV) 11문항, 의존성(DP) 15문항, 강박성(OC) 13문항 등이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PN .63, SZ .74, ST .75, AS .70, BL .72, HT .61, NC .66, AV .69, DP .70, OC .53이었다.

결 과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간의 상관관계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1), DSM-IV의 성격장애 군집 A에 속해있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경우 신경증($r=.210,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향성($r=-.189, p < .01$), 친화성($r=-.201, p < .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개방성, 성실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외향성($r=-.338, p < .01$), 개방성($r=-.137, p < .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분열형 성격장애와 신경증($r=.279, p < .01$), 개방성($r=.160, p < .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친화성($r=-.245, p < .01$)과 성실성($r=-.114, p < .05$)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외향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군집 B에 속해있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친화성($r=-.284, p < .01$)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표 1. DSM-IV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변인들의 상관관계

성격장애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편집성	.210**	-.189**	-.010	-.201**	-.005
분열성	.059	-.338**	-.137**	.023	-.054
분열형	.279**	-.082	.160**	-.245**	-.114*
반사회성	.004	.088	.077	-.284**	-.058
경계선	.332**	.038	.146**	-.307**	-.199**
연기성	.140**	.212**	.162**	-.228**	-.152**
자기애	.105*	.109*	.183**	-.232**	-.107*
회피성	.169**	-.248**	-.042	.064	-.057
의존성	.227**	-.174**	-.043	.064	-.093
강박성	-.014	-.064	-.024	.112**	.243**

** $p < .01$, * $p < .05$

않았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신경증($r=.332, p < .01$), 개방성($r=.146,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화성($r=-.307, p < .01$), 성실성($r=-.199, p < .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외향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기성 성격장애는 신경증($r=.140, p < .01$), 외향성($r=.212, p < .01$), 개방성($r=.162, p < .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화성($r=-.228, p < .01$), 성실성($r=-.152, p < .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신경증($r=.105, p < .05$), 외향성($r=.109, p < .05$), 개방성($r=.183,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친화성($r=-.232, p < .01$), 성실성($r=-.107, p < .05$)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군집 C의 회피성 성격장애는 신경증($r=.169,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외향성($r=-.248, p < .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의미 있

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신경증($r=.227,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외향성($r=-.174, p < .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친화성($r=.112, p < .01$), 성실성($r=.243,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격장애를 예측하는 성격 5 요인

성격장애 군집 A에 속하는 각 성격장애를 성격 5 요인의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중 어떤 변인으로 가장 잘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는 신경증,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으

로 예측할 수 있었다: 신경증 4.4%($\beta=.210, p <.001$), 친화성 3.0%($\beta=-.174, p <.001$), 외향성 3.1%($\beta=-.186, p <.001$), 성실성 2.1%($\beta=.167, p <.01$). 분열성 성격장애는 외향성 변인만이 11.5%($\beta=-.338, p <.001$)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분열형 성격장애의 경우 신경증이 7.8%($\beta=.279, p <.001$), 친화성이 4.2%($\beta = -.208, p <.001$), 개방성이 1.5%($\beta=.125, p <.01$), 외향성이 1.3%($\beta=-.125, p <.05$)을 설명하였다.

군집 B 성격장애에 대한 성격 5요인 변인들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해 유일하게 친화성이 8.1%($\beta=-.397, p <.001$)의 예측력이 있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신경증이 11.0%($\beta=.332, p <.001$), 친화성이 6.8%($\beta=-.264, p <.001$), 개방성이 1.0%($\beta = .101, p <.05$)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기성 성격장애는 친화성이 5.2%($\beta=-.228, p <.001$), 외향성이 3.3%($\beta=-.184, p <.001$), 성실성이 3.9%($\beta=-.206, p <.001$)를 예측하였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친화성이 5.4%($\beta=-.232, p <.001$), 개방성이 2.5%($\beta=.158, p <.01$), 성실성이 1.1%($\beta=-.105, p <.05$)를 예측하였다. 군집 C의 회피성 성격장애의 경우 외향성이 6.1%($\beta = -.248, p <.001$), 신경증이 1.3%($\beta=.117, p <.05$)를 설명하였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신경증이 5.2%($\beta=.227, p <.001$), 외향성이 1.5%($\beta = -.128, p <.05$)를 예측하였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성실성이 5.9%($\beta=.243, p <.001$), 외향성이 1.9%($\beta=-.142, p <.01$)를 예측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DSM-IV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의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DSM-IV 성격장애를 차원모델인 성격 5요인 모델로 기술하고 변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는 외향성, 친화성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경증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개방성과 성실성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친화성과 외향성이 부적의 예측변인이었고 신경증과 성실성은 정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주된 특징인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과 불신이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의미로 부적의 친화성과 외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편집성 성격장애가 낮은 신뢰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친화성을 지닌다는 Costa, McCrae, 그리고 Dye (199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분열성 성격장애에서는 외향성과 개방성에서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외향성만이 부적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분열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징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 양상과 대인관계 상황에서 제한된 감정 표현이라는 점(APA, 1994)에서 부적의 외향성과 개방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하거나 가족 외에 가깝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특징에도 이런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Coolidge 등(Coolidge, Becker, DiRito, Durham, Kinlaw, & Philbrick, 1994)과 Hyer 등(Hyer, Braswell, Albrecht, Boyd, Boudewyns, & Talbert, 1994)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분열형 성격장애에서는 신경증과 개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화성과 성실성은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향성

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 신경증과 개방성은 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친화성과 외향성은 부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은 분열형 성격장애에서의 불안과 부적감, 개방성은 기묘한 신념, 특이하고 엉뚱한 생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분열형 성격과 개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뿐 아니라(Dyce, & O'Connor, 1998; Haigler & Widiger, 2001) 불일치하는 결과도 있어(Lehne, 1994)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 친화성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친화성이 부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hne(1994)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에서는 신경증과 개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화성과 성실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향성만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도 신경증과 개방성은 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친화성은 부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rull(1992), Soldz, Demdy, 및 Merry(1993), Coolidge 등(1994), Bagby 등(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이 성격장애의 특징인 정서적 고통과 정서조절의 어려움, 자기상과 타인지각의 불안정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기성 성격장애에서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화성, 성실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개방성은 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친화성과 성실성은 부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교성, 피암시성, 정서 및 대인관계의 피상성 등 연

기성 성격장애의 정의적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친화성, 성실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다회귀 분석결과 친화성과 개방성이 정적인, 그리고 성실성이 부적인 예측변인이었다. 신경증 요인이 의미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현실과 높은 이상 간의 괴리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며, 외향성과 개방성은 그들의 지각된 유능감 또는 적응능력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부적 예측변인인 친화성의 경우 이 장애의 중요한 특징인 착취적 대인관계 및 공감의 결여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역시 부적 예측변인인 성실성의 경우 Costa와 McCrae(1990)의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회피성 성격장애에서는 신경증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향성 요인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른 요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부적인 예측변인으로 외향성과 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신경증 변인이 나타났다. 이는 Yang, Dai, Yao, Cai, Gao, McCrae, 그리고 Costa(200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신경증의 경우 군집 C의 공통적인 특징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외향성의 경우 그들의 제한된 대인관계 및 회피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존성 성격장애에서도 회피성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신경증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향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개방성, 친화성과 성실성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Trull과 Widiger(199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친화성, 성실성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다른 요인들

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성실성과 부적적인 예측변인으로 외향성이 나타나 이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사교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특징을 잘 반영한다. Haigler와 Widiger(200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DSM-IV의 10개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격 5요인 모델이 성격장애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성격 또는 성격장애의 극단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자료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자료의 극단값이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격장애 점수와 성격특질 점수간의 상관의 크기가 실제에 비해 낮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포함시켜 상관의 정도가 본 연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임상집단에서도 본 연구에서 같은 패턴의 상관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NEO-PI-R 외의 다른 성격 5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NEO 인성검사. 서울, PSI 컨설팅.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73-288.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443-473.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rev.). Washington, DC.
Bagby, R. M., Costa, P. T. Jr., Widiger, T. A., Ryder, A. G., and Marshall, M. (2005).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Domain- and Facet-Level Prediction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 307-324.
Blais, M. A. (1997). Clinical rating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85, 388-393.
Blais, M. A., McCann, J. T., Benedict, K. B., & Norman, D. K. (1997). Toward an empirical/theoretical grouping of the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 191-198.
Blashfield, R. K. (1984). *The classification of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Coolidge, F. L., Becker, L. A., DiRito, D. C., Durham, R. L., Kinlaw, M. M., & Philbrick, P. B. (1994). On the relationship of the five-factor personality model to

- personality disorders: Four reservations. *Psychological Reports*, 75, 11-21.
- Costa, P. T., Jr., McCrae, R. R., & Dye, D. A. (1991). Facet scales for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A revision of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887-898.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0).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 362-371.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yce, J. A. (1997). The Big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 587 - 593.
- Dyce, J. A., & O'Connor, B. P. (1998).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A test of facet-level predi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2, 31 - 45.
- Eysenck, H. (1986). A critique of contemporary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In T. Millon & G.L. Klerman(Eds.). *Contemporary directions in psychopathology: Toward the DSM-IV*(pp 73-98). New York: Guilford Press.
- Frances, A. J. (1982). Categorical and dimensional systems of personality diagnosis: A comparison. *Comprehensive Psychiatry*, 23, 506-526.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141-165.
- Goldberg, L. R.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 26-34.
- Haigler, E. D., & Widiger, T. A. (2001).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NEO PI-R it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7, 339-358.
- Hyer, L., Braswell, L., Albrecht, B., Boyd, S., Boudewyns, P., & Talbert, S. (1994). Relationship of NEO-PI to personality styles and severity of trauma in chronic PTS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 699-707.
- Lehne, G. K. (1994). The NEO-PI and the MCMI in the forensic evaluation of sex offenders. In: Costa, P., Widiger, T. (Eds.),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ynam, D. R., & Widiger, T. A. (2001). Using the Five-Factor Model to represent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 expert consensus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401-412.
- Millon, T. (1991). Classification in psychopathology: Rationale, alternatives, and standard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245-261.
- Morey, L. C., Gunderson, J. G., Quigley, B. A., & Lyons, M. (2000). Dimensions and categories: The "big five" factors and the DSM personality disorders. *Assessment*, 7, 203-216.
- Oldham, J. M. (1987).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ssessment problems. *Journal of*

- Personality Disorders*, 1, 241 - 247.
- Saulsman, L. M., & Page, A. C. (2004). The five-factor model and personality disorder. empirical literature: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1055-1085.
- Soldz, S., Demdy, A., & Merry, J. (1993).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in circumplex and five factor space L Exploration with a clinical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41-52.
- Trull, T. J. (1992).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 empirical comparis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553-560.
- Trull, T. J., & Widiger, T. A. (1997). *Structured interview for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Tyrer, P., & Ferguson, B. (1987). Problem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17, 15-20.
- Widiger, A. T. (2005).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order: Integrating science and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67 - 83.
- Widiger, T. A. (1991). Personality disorder dimensional models proposed for DSM-IV.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5, 386-398.
- Widiger, T. A. (1993). The DSM-III-R Categorical Personality Disorder Diagnoses: A Critique and a Alternative. *Psychological Inquiry*, 4, 75-90.
- Widiger, T. A., & Frances A. J. (1994) Toward a dimensional model for the personality disorders. In: PT Costa, TA Widiger (Eds),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2nd ed, pp.19-3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Widiger, T. A., & Lowe, J. R. (2007). Five-factor model assessment of.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 16 - 29.
- Widiger, T. A., & Samuel, D. B. (2005a). Diagnostic Categories or Dimensions? A Question for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494-504.
- Widiger, T. A., & Samuel, D. B. (2005b). Clinician's Judgments of Clinical Utility: A Comparison of the DSM-IV and Five-Factor Mode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298-308.
- Yang, J., Dai, X., Yao, S., Cai, T., Gao, B., McCrae, R. R., & Costa, P. T., Jr. (2002).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Chinese psychiatric patients. In P. T Costs, Jr., & T. A. Widiger (Eds.)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p.215-22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원고접수일 : 2008. 6. 25.
게재결정일 : 2008. 7. 3.

〈Brief Report〉

The Relationships between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Soon-Taeg Hwang

Hun Yoon

Suk-H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actors from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can be applied to a categorical model of personality disorders. Three hundred ninety subjects, who were over 19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collecting the data. The five factors (neuroticism, extroversions, openness to experience,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of personality showed significantly correlations with the scores of the ten DSM-IV personality disorders. 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significantly predicted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The Paranoid, Schizotypal, Borderline, Avoidant, and Dependant PDs were positively predicted by 'neuroticism'. The Paranoid, Schizoid, Avoidant, and Obsessive-Compulsive PDs were negatively predicted and the Borderline PD was positively predicted by 'extroversion'. The Schizotypal,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Ds were positively predicted by 'openness to experience'. The Paranoid, Schizotypal, Antisocial, Borderline, Histrionic, and Narcissistic PDs were negatively predicted by 'agreeableness'. The Paranoid and Obsessive-Compulsive PDs were positively predicted and the Histrionic and Narcissistic PDs were negatively predicted by 'conscientious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rsonality disorders can be represented by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Key words : personality disorders,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categorical model, dimensional model